

# 기업윤리 브리프스

9호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http://www.acrc.go.kr) "기업윤리"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Monthly Business Ethics Briefs

전문가 칼럼

## 윤리경영은 감동의 상생전략에서 싹튼다.



연세대학교 철학과  
김형철 교수

오늘날 윤리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드높다. 최근 우리사회에 불거지고 있는 갑을간의 공평한 위상 정립에 대한 요구는 그 어느 누구도 무시하기 힘든 상황이다. 기업은 윤리경영을 회피하거나 무시하려는 부정적 태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미국 한 아이스크림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 회사에 납품하는 낙농업체 대표들이 건의문 하나를 낸다. 한 달 만에 분유가격이 1/3로 폭락해서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폭락 이전 가격에 계속 구매해 달라는 것이다. 그 아이스크림 회사의 결정은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다. 폭락 이전 가격 플러스 5% 특별 경영지원금을 지급한 것이다. 2년 후 소비자 단체들이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인다. 이번에는 아이스크림회사 사장이 낙농업체 대표들에게 유전자 조작 사료를 짓소에 먹이지 말아달라는 편지 한 통을 쓴다. 식품매장에서 랜덤으로 샘플링하여 조사한 결과, 이 회사제품을 제외한 다른 모든 아이스크림에서 유전자 조작성분이 검출된다. 경쟁자는 불매운동에 시달릴 때 이 회사는 추천품목에 들어간다. 그야말로 대박이다. 이런 것이 윤리경영의 상생전략이다.

둘째, 잘못을 확실하게 그리고 빨리 시인하라! 진통제를 먹은 사람들이 7명씩이나 죽는 사고가 시카고에 벌어진다. 제약회사는 즉각 약국에 있는 자사제품을 수거한다. 사망자는 시카고 지역에 국한되었지만

리콜은 알래스카에서 플로리다까지 미국 전역에 있는 약국에서 이루어진다. 손실은 엄청났다. 그러나 고객들은 이러한 기업의 배려에 재구매라는 행위로 보답한다. 상상을 뛰어넘는 행동만이 사람들을 감동시킨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멀리 보고 고민하는 기업만이 백년 이백년 장수할 수 있다. 윤리경영은 원고심려(遠考深慮)다.

셋째, 고객을 먼저 배려하라! 한 지하 수퍼마켓에서 정전사태가 발생한다. 카운터에는 계산을 하기 위해 고객들이 주욱 늘어서 있다. 창문도 제대로 없어서 칠흑같이 어둡다. 그런데 정전이 되었으니 계산기도 작동이 안된다. 이런 상태로 5분이 지났다. 언제 다시 불이 들어올지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그 계산대에 있는 판매원이 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종업원이 취한 태도는 전혀 예상 밖의 행동이었다. "여러분, 쇼핑한 물건을 그냥 가져가세요. 그리고 시간 날때

▶ 2면에서 계속됩니다.

| 윤리경영<br>전담조직 운영         | 전담조직 구축              |                   | 전담 인력 있음            |                  | 겸직 인력 있음       |                 |
|-------------------------|----------------------|-------------------|---------------------|------------------|----------------|-----------------|
|                         | 36개 기업               |                   | 2개 기업               |                  | 2개 기업          |                 |
| 윤리경영<br>교육 수행           | 전직원 대상               | 윤리업무<br>담당자 대상    | 임원 대상               | 부서장<br>대상        | 외부<br>이해관계자 대상 | 부서별<br>특성을 살림   |
|                         | 38개 기업               | 21개 기업            | 23개 기업              | 19개 기업           | 23개 기업         | 20개 기업          |
| 윤리경영<br>커뮤니케이션<br>채널 구축 | 윤리경영<br>커뮤니케이션       | 임직원 대상<br>커뮤니케이션  | 이해관계자 대상<br>커뮤니케이션  | 해당사항 없음          |                |                 |
|                         | 39개 기업               | 38개 기업            | 35개 기업              |                  |                |                 |
| 윤리경영<br>성과 평가           | 기업의 윤리경영<br>성과 평가    | 임직원 윤리경영<br>성과 평가 | 이해관계자<br>윤리경영 성과 평가 | 해당사항 없음          |                |                 |
|                         | 32개 기업               | 25개 기업            | 23개 기업              |                  |                |                 |
| 윤리경영<br>성과 보고           | 매년발간                 |                   | 격년발간                |                  | 해당사항 없음        |                 |
|                         | 28개 기업               |                   | 8개 기업               |                  | 4개 기업          |                 |
| 윤리경영<br>추진에 있어<br>어려운 점 | 구성원<br>무관심           | 관련<br>정보 부족       | 정부 지원<br>부족         | 경영진<br>의지 부족     | 법과 제도<br>미비    | 기업의 제도적<br>정지미비 |
|                         | 13개 기업               | 11개 기업            | 10개 기업              | 5개 기업            | 2개 기업          | 2개 기업           |
| 정부에게<br>바라는 점           | 윤리경영 기업에<br>대한 정부 지원 | 윤리경영에<br>대한 정보 제공 | 부패척결에<br>대한 명확한 의지  | 윤리경영에<br>대한 정책강화 |                |                 |
|                         | 26개 기업               | 17개 기업            | 10개 기업              | 4개 기업            |                |                 |

1) 조사기간은 2013년 8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의 기간 동안 수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국내의 주요 50개 기업을 선정하여 각 기업의 윤리경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40개 기업(공기업 14개, 민간기업 26개)이 응답하였다.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윤리경영 정착과 확산을 위한 체계 및 인프라에 대한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반해 윤리경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성원의 무관심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나타나,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데 있어 체계 및 인프라 구축과 함께 윤리경영을 내재화하고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윤리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윤리경영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역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패척결에 대한 명확한 의지와 정책 강화를 통해 기업으로 하여금 윤리경영 실천 동기를 부여함이 필요하다.

## 기업의 윤리경영 정착과 확산의 현 주소

### :: 국내 주요 40개 기업 윤리경영 현황 조사

국내 윤리경영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윤리경영 정착(윤리경영 비전 및 전략, 윤리강령 제정, 전담조직 구축)과 확산(윤리경영 교육, 평가, 보고)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sup>1)</sup> 하였다.

### :: 국내 주요 기업 윤리경영 현황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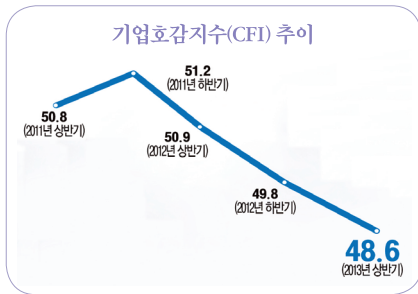
| 윤리경영<br>비전과<br>전략 제시 | 명문화된 비전과<br>전략 제시 | 명문화된 비전 제시  | 명문화된 전략 제시   |
|----------------------|-------------------|-------------|--------------|
|                      | 6개 기업             | 33개 기업      | 1개 기업        |
| 윤리강령 제정              | 윤리강령 제정           | 정기적 개정 및 수정 | 비정기적 개정 및 수정 |
|                      | 40개 기업            | 14개 기업      | 23개 기업       |

## 최근 국내외 동향

### :: 국내 윤리경영 동향

#### 윤리적 경영 자세 부족, 국민 기업호감지수 48.6점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호감도가 지난해 하반기 대비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현대경제연구원과 함께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상반기 기업호감지수(CFI)'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0점 만점에 48.6점을 기록하였다. 이는 2011년 하반기(51.2점) 이후 3분기 연속 하락한 것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각 요소별 점수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 호감도의 경우 48.1점에서 46.7점으로 낮아졌다. 기업에 호감이 가지 않는 이유로 국민들은 윤리적 경영자세 부족(50.9%)을 가장 많이 지적했고, 이어 사회적 공헌 등 사회적 책임 소홀(22.5%), 기업간의 경쟁협력 부족(18.3%), 고용창출 노력 부족(7.8%) 등을 차례로 지적하였다.

#### 통신 3사, 3세 사회공헌활동 '눈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이색적인 사회공헌활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SK텔레콤은 '행복동행'이란 프로그램으로 만 45세 이상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을 지원하여 일자리창출과 동반성장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KT는 지난 2007년 전 국민의 IT활용도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IT서포터즈를 출범시켰으며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IT활용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을 '드림티처'로 양성해 3년 동안 1천개의 사회공헌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사랑 플러스'로 세상에 행복을 더하는 기업'이라는 목표로 청소년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다.

#### 공공공사 입찰 때 사회적 책임 가점 등 '착한 기업' 수주 유도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건설공사 발주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이른바 '착한 기업'의 수주를 유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현행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해 종합심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심사제도는 가격과 공사수행능력의 합산 점수외에, 사회적 책임 가점을 있어 종합평가해 최종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공정거래, 고용, 안전 등 3개 부문을 대상으로 입찰기업들을 평가해 낙찰자 선정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가점을 얼마나 배정할지에 따라 그 파장이 달라질 전망이다.

####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무회의 통과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알선·청탁문화와 관행적인 금품수수 등을 근절하고, 공직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제정을 추진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기존 반부패 관련 법령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장치를 마련한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① 부정청탁의 금지, ② 금품수수의 금지, ③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1면에서 이어집니다.

원하시는 자선단체에 그 돈을 기부하세요!" 나중에 계산해보니 손실액은 약 4천불에 달했다. 이 사실이 미디어를 타기 시작하자 그 체인수퍼의 이름이 전국뉴스에 계속 오르락내리락한다. 추정광고효과는 무려 그 백배에 해당하는 40만 불이었다.

### :: 해외 윤리경영 동향

#### 윤리경영·사회공헌 정착으로 대기업 '신뢰'를 쌓는다

독일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익의 일부를 공익을 위해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세계 150여 개국에 진출한 글로벌 제약회사인 바이엘은 교육, 건강,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 300여 개 프로젝트를 운영 중인데 여기에 매년 4,500만 유로(668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으며, 벡터그룹은 국민자 지원 등 100여 개의 사회환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한 독일 최대 전기·전자기업인 지멘스는 이동병원 및 정수장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진료 인원 수 등 객관적 수치도 중시하지만, 주민들의 재할 가능성 등 근본적 가치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 중국, 제약·의료업계 비리 3개월간 전국 확대조사

중국 당국은 '영국계 다국적 제약업체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뇌물제공과 가격담합 사건'으로 드러난 제약업체와 의료업계의 비리를 캐는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해 3개월간 실시하기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하였다. 법제일보도 중국 당국의 전국적인 비리조사 사실을 전하면서, 이번에는 의약품 판매 과정에서 주고받는 뇌물을 중점적으로 캐는 동시에 정부기관과 다른 기구가 공정한 경쟁을 억제하고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공상행정관리총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뇌물과 사기 같은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관행이 날로 심해지고 있어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자체 조사를 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 중 인터넷 反부패 효과... '실명고발 보호장치 필요'

7월 1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사 계열 '경제참고보' 수석기자 왕원즈가 '화문집단 이사장 송린의 국가자산 낭비혐의'에 대해 웨이보(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실명 고발하였다. 올해 4월 인민망, 신화망, 중국신문망 등 주요 관방 언론은 인터넷 고발코너를 만들고 일반 국민에게 기율위반이나 위법행위에 대해 적극 고발해줄 것을 독려했다. 민원담당 정부기관인 국가신방국도 지난달부터 인터넷 탄원을 접수하기로 하고 억울한 사연이나 비리 제보를 받고 있는 등 인터넷을 활용한 부패척결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도 일반 국민이 부패한 권력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명고발이 부패척결에 한몫하고는 있지만 고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소니, 책임있는 투명 경영 거듭 강조

미국 헤지펀드업체인 서드포인트의 대표 롭은 "소니의 엔터테인먼트 사업부의 경영상태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경영을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이에 소니는 엔터테인먼트 사업부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소니는 최근 다음 분기보고 때 영화와 뮤직 부문을 세분화해서 영업실적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소니 이사회는 전자기기와 콘텐츠의 통합에서 시너지가 나온다는 종전의 기업전략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롭의 분사요구를 거절하였다.



착하게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다. 평판효과를 무시할 사람도, 조직도 이 세상에는 없다.

# 현장을 찾아서

## :: 동부화재

동부화재는 “고객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글로벌 보험금융그룹”이라는 비전을 지향하며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전략과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고객가치를 제고하고 고객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윤리경영 체계 구축 및 전담부서 설치 등 윤리경영 강화

동부화재는 경영진 및 임직원 모두가 윤리경영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실천함으로써 회사경영 전반에 윤리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확고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동부화재는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경영 전담부서를 구축하였으며,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통해 윤리경영 뿐만 아니라 분기별로 경제적 성과와 환경경영 성과, 사회공헌 성과 등 지속가능경영 활동성과를 관리하고 있다.



〈동부화재의 윤리경영 비전〉

### 전 임직원 및 자회사를 포함한 윤리교육 실시 대상 확대

동부화재는 신입사원, 경력사원 교육시 보험관련 제반 법규, 윤리경영 개론을 기본 커리큘럼으로 구성하여 입사자 전원에게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존 직원에 대해서도 온라인 과정을 개설하여 전 직원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전 직원에 대하여 윤리강령 및 윤리강령 실천지침의 숙지수준을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윤리의식 수준을 전사적으로 향상시키는 등 업무현장에서의 윤리경영을 확산 해 나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부화재 뿐만 아니라 자회사에서도 자율적으로 윤리준법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 윤리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5가지 단계

윤리경영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수익성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해외의 많은 선진 기업들은 이미 윤리경영을 기업이념으로 정립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윤리경영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어떻게 윤리경영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CEO의 실천의지 선언

윤리경영을 기업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CEO의 윤리경영 실천의지가 필요하다. 이는 CEO의 윤리경영 실천의지가 결국 기업 전체의 윤리적인 기업이미지 구축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 윤리경영 조직 체계화

윤리경영을 기업이념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에 윤리위원회, 윤리실천 사무국, 윤리경영 담당 책임자를 두어 윤리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CEO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파하고, 수시 및 정규교육, 집합연수,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구성원에게 윤리경영 진단 평가를 실시함으로 공감대를 확보하도록 한다.

### 윤리규범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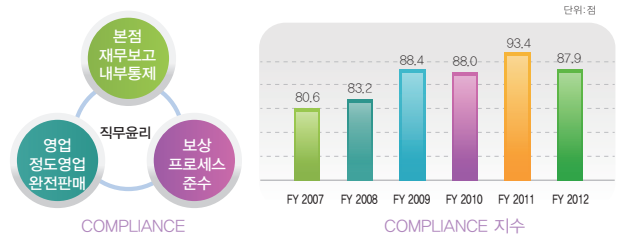
윤리규범의 제정을 통해 윤리적 문제 발생 시 윤리적 판단기준을 제공하여 임직원의 자의적 판단 여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 윤리규범은 조직윤리 문제 발생 시

| 구분         | 2010  | 2011  | 2012  |
|------------|-------|-------|-------|
| 윤리경영 교육 시간 | 1,276 | 1,368 | 1,404 |
| 윤리경영 교육 인원 | 2,534 | 2,678 | 2,775 |

〈동부화재 윤리경영 교육 현황〉

### 직무별 세분화된 윤리지침 및 윤리경영 평가 제도 운영

동부화재는 부문별(본점, 영업, 보상), 직무별로 세분화된 윤리지침을 통해 실제업무에서 개개인들이 참고해야 할 윤리지수를 개발해 타 보험사와 차별성을 둔 윤리경영을 펼치고 있다. 윤리지수 전사 공통 항목은 직무윤리, 외부감사 지적건, 윤리강령 위반사항, 준법감시 활동보고 평가항목이며, 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평가 항목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 전 직원의 실천적 윤리경영을 이끌어 내고 있다.



〈동부화재의 윤리지수 관리〉

### 윤리경영 체크리스트 개발

동부화재는 직원 스스로 '자율점검표'라는 윤리경영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동부화재의 자율점검표는 임직원이 윤리적인 딜레마에 빠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지표이다. 자율점검표는 다섯 가지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다른 관점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분명한 태도를 배제할 수 있다.

| 동부화재 자율점검표 |                                  |
|------------|----------------------------------|
| 체크리스트      |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동부인의 윤리경영에 위배되지 않는가? |
|            | 시간이 지나도 이 일에 대해 옳았다고 생각할 것인가?    |
|            | 내가 하려는 일이 가족에게 알려져도 떳떳한가?        |
|            | 이 일로 인해 부당한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사람은 없는가? |
|            | 이 일이 나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가?            |

여론의 비판 또는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하급직원이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을 시 대항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 윤리경영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

윤리경영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을 통해 구성원들의 윤리의식 공유 및 동참을 유도할 수 있다. 윤리경영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회사 내부인 구성원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강화시킬 수 있고, 회사 외부인 고객, 주주(투자자), 협력업체에게 홍보함으로써 기업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다.

### 윤리경영 평가

윤리경영 평가 시스템을 통해 윤리경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문제점을 파악한다. 각 분야에서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청렴성이 보장되는 구성원을 선정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평가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기한다.

윤리경영은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수익을 증대시키며, 재무안정성 및 투자유치를 확대시킨다. 이와 더불어 위험요인들을 관리하고 준비하여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기업은 윤리경영을 통해 회사의 명성과 긍정적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지 제고와 기업 수익의 관계성〉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신고란?

공익신고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신고는 구조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공익침해행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저비용·고효율의 통제수단으로서, 기존의 내부 또는 외부통제가 지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자율통제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 공익신고 방법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의 대표자·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수사기관·국회의원·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 공익신고자 보호체계 및 내용

공익신고자나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보호조치 신청은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 비밀보장

공익신고자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보도할 수 없으며,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도 안 된다. 또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 ● 신변보호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관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 요청할 수 있다.

### ● 책임감면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면제가 가능하며, 관련 사유로 공익신고자 등을 징계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의 감면을 요구하면 따라야 한다.

### ● 불이익 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 등이 전직·전출·전입·파견근무 등 인사조치 요구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Q 본인이 관련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해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비밀보호, 신변보호, 원상회복 등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 및 협조자를 징계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례별로 위법행위의 중대성 및 동기나 경위, 신고 외의 징계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의 감경이나 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상 및 구조

공익침해행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및 증대를 가져 오거나 그에 관련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권익위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0억이며,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개별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하지 않는다.

## Q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왔거나 이에 대한 불복 제기기간 경과 또는 대법원 확정판결 등 법률관계가 확정되었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요건이 되는 수입의 회복·증대 사유는 ① 벌칙 또는 통고처분 ② 몰수 또는 추징금 ③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 ④ 과징금 ⑤ 국제 또는 지방세 ⑥ 부담금 또는 가산금 ⑦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처분·판결이 있을 경우 등입니다.

## 기업활동 애로사항은 '기업옴부즈만'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기업활동 과정에서 겪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기업 고충,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접수받아 해결해 주기 위해 기업 전담 민원창구인 '기업옴부즈만'을 2009년부터 개설·운영하고 있다.

### '직접 방문'이나 '국민신문고'로 접수 가능

기업고충민원은 ON-OFF라인 접수체계 구축으로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시켰다. 서울 서대문구 소재 권익위 청사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에 '영세소상공인·중소기업 민원 전문방문상담 창구'를 방문하여 현장상담을 하고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또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에 '기업민원신청' 코너를 통하여 인터넷상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권익위는 기업민원 전담부서 및 전담자를 배치하고, 각 민원부서별로 기업민원 책임자를 지정·운영하는 등 기업고충민원의 처리체계를 갖추고 있어 민원접수 즉시 응대하도록 하고 있다.

### 2009년부터 1,256건 접수·처리

기업옴부즈만을 도입한 2009년부터 2013년 6월까지 4년 6개월간 총 1,256건을 접수받아 처리하였는데, 그 중 약 25.5%에 해당하는 321건은 신청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었다. 세부 유형으로는 중소기업의 창업·공장허가 거부, 자금지원·공사대금 지급 거부 등 기업경영 활동상 애로, 산업단지 조성·도로건설 등 공익사업으로 인한 사업부지 편입 피해, 부실발점·부정당업자 지정 등 과도한 행정제재, 취득세 감면 요구 등이 대부분이다.

권익위는 앞으로 기업옴부즈만의 실효성 증진을 위하여 기업유관기관과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 건의 창구 역할과 정보공유 및 기업고충민원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개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인 11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기업윤리 브리프스에서는 '윤리경영 One Point lesson'을 통해 윤리경영업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Q** 윤리경영 활동을 전개하다 보면 공무원(발주처 또는 인허가 담당)들의 요구에 의해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아 건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차원의 제보가 이루어지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제보로 인한 보복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의 운영여부, 실제 제보가 얼마나 활성화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A**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등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패행위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한 이유로 신고자, 친족, 동거인, 협조자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기타 보호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패행위에 대하여는 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부패·공익침해신고상담센터(1398)를 통하여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며, 연간 약 2,500여건의 부패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Q** 해외부패방지법 관련 사례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보다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위반에 대하여 SEC<sup>1)</sup>는 2011~2013년 동안 다음과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SEC는 국적에 상관없이 FCPA를 위반한 기업을 기소하였으며, 기업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액의 비용을 지불할 것을 합의하였다.

| 연도   | 기업                                    | 금액           | 내용                                                                           |
|------|---------------------------------------|--------------|------------------------------------------------------------------------------|
| 2011 | Magyar Telekom                        | 9,500만 달러    | 마케도니아와 몬테네그로의 정부 및 정당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
|      | Johnson & Johnson                     | 7,000만 달러    | 제품에 대한 계약을 따내기 위해 여러 유럽국가의 국립 의사에게 뇌물을 주고, 불법적으로 업무를 얻어내기 위해 이라크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
|      |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 | 1,000만 달러    | 중국과 한국 관공서에 부당한 현금지급, 선물, 여행 및 접대를 제공한 혐의                                    |
| 2012 | Pfizer                                | 4,500만 달러    | 제품의 승인, 판매권 등을 얻어내기 위해 불가리아 등의 해외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
|      | Morgan Stanley                        | 25만 달러 이상    | 전 경영진 Garth R. Peterson가 중국 고위 공무원과 함께 사적으로 토지를 인수한 혐의                       |
|      | Smith & Nephew                        | 2,200만 달러 이상 | 자회사(미국, 독일 소재)가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그리스 국립의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
| 2013 | Total S.A.                            | 39,800만 달러   | 석유 및 가스 개발을 위한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중개인을 통해 이란 관공서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
|      | Ralph Lauren                          | 70만 달러 이상    | 아르헨티나 관공서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
|      | Philips Electronics                   | 450만 달러 이상   | 폴란드 헬스케어 자회사의 임직원이 뇌물을 제공한 혐의                                                |

1)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증시에서 이뤄지는 거래를 감시하는 정부 직속 기관)



9월 국내외 행사를 소개합니다!

## 국내

### 2013 사회공헌 혁신포럼

사례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바라본 사회공헌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 형식으로 진행 예정.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혁신적 사회공헌에 대해 논의 예정

- 주 최 : 라임글로벌
- 일 시 : 2013년 9월 26일(목) 오후 14:00~18:00
- 장 소 : 역삼동 포스코 P&S 3층
- 참가비 : 포럼 회원사(무료)/비회원(1인 기준 100,000원)

### 제2차 전경련 기업윤리학교ABC

기업의 윤리경영 관련 임직원 및 학계인사를 대상으로 경제계의 자율적 윤리경영 실천과 인프라 확장을 위해 베스트 프랙티스와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윤리경영에 대한 구체적 기획과 실천전략을 모색할 예정

- 주 최 : 전국경제인연합회
- 일 시 : 2013년 9월 10일(화) 오후 14:00~18:30
- 장 소 : 부산 BEXCO 제2전시장 1층
- 참가비 : 무료



## 해외

### UNGC Leaders Summit 2013

'Architects of a Better World: Post 2015'라는 주제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 경영의 촉진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형식의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

- 주 최 : UNGC (유엔글로벌콤팩트)
- 신청기간: 2013년 9월 19일(목)~20일(금)
- 장 소 : Grand Hyatt New York 호텔

(109 East 42nd Street at Grand Central Terminal New York, NY USA 10017)

## 윤리경영 퀴즈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공익 신고자는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불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의 이름은 무엇인가?

- 1) 부패방지법
- 2) 공익신고자 보호법
- 3) 청렴계약법
- 4) 내부고발자 보호법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 (1만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 지난호 정답 : 1) 중소기업 음부즈만 제도
- 정답 제출처(25일 까지) : 국민권익위원회 기업윤리브리프 담당자 문옥인(oim2821@korea.kr)
- ※ 정답과 함께 성함, 연락처, 주소(상품을 받아보실 수 있는 곳)를 적어 보내주시고.
- 지난 호 퀴즈 정답자는 김종은님, 백일현님, 조원동님, 이희진님, 임순필님입니다.
- ※ 보내주신 주소로 상품권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Yes 준비! Ok 윤리!

CCTV



자료제공 : 교보생명 (그림 안중만)

## 새로운책 소개



### 1. 금융, 따뜻한 혁명을 꿈꾸다

저 자 : 문진수  
출 판 : 북돋음  
출판일 : 2013년 8월 5일  
정 가 : 14,000원



### 2. 골목상권 챔피언들

저 자 : 조성진  
출 판 : 이와우  
출판일 : 2013년 8월 5일  
정 가 : 14,000원



### 3. 브랜딩의 제3의 물결 코즈 마케팅

저 자 : 전재호, 전병길  
출 판 : 새로운제안  
출판일 : 2010년 7월 10일  
정 가 : 13,000원

- 본 월간지의 저작권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습니다.